

# 現在 時制 心理體系論的 分析

## 現在 時制의 心理體系論的 分析

金 宇 珍  
(文科大學 佛語佛文學科)

### Analyse du présent en français du point de vue psychomécanique

Ou Jin Kim  
(Dep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 Résum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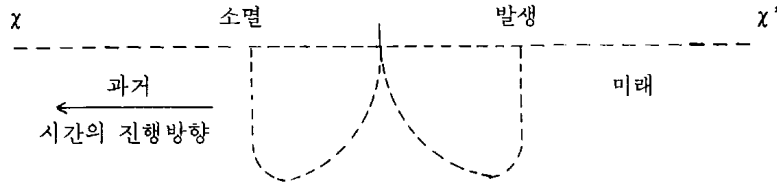
Cette analyse du présent français, en reposant sur le psychomécanique de G. Guillaume, démontre que le présent est une construction de pensée dont la structure ne peut être cernée que par une méthode inductive fondée sur l'observation des emplois et non en recourant à une analyse conceptuelle de la notion extra-linguistique que cette forme serait censée exprimer.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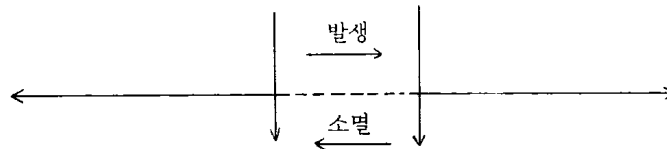
명사는 시간성 *temporalité* 이 배제된 대상을 나타내는 말인데 비해서 동사는 시간성을 띤 사행 *procès* 의 표현으로 규정하는 것은 동사의 개념 정의가 *temporalité* 와 *modalité* 의 특성에 따르기 때문이다.<sup>1)</sup> 따라서 동사 체계에 대한 본고의 일차 대상을 그의 시간성에 두고 특히 G. Guillaume 의 심리체계론 *psychomécanique* 에 비추어서 시간의 중심 위치에 놓여 있는 현재시제가 불어에서는 어떠한 구조적 특성을 띠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하려고 한다.

기욤의 언어사상은 갈수록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로 많은 연구와 응용의 실적이 나오고 있으나, 그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의 결여로 어느 한 관점 또는 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 그의 사상을 결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눈에 띄는데, 특히 동사체계의 연구에 관한 것 중에서 불어 동사의 현재 시제에 관한 분석이 그렇다. 그 하나의 예가 C. Baylon, P. Fabre 의

Grammaire 인데<sup>1)</sup> 그들은 기움의 時標 chronotype 이론을 근거로 해서 하나의 추론을 전개함으로써 현재 시제의 다양한 용법을 설명하고 재규합해 보려는 시도를 했다. 더구나 동사의 어의가 點括的 ponctuel 인 경우를 제외하면 현재의 相 aspect 은 미완료성을 띤다고 지적하고<sup>2)</sup> 계속해서 기움의 시표를 도표로 설명하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에 관련한 동사형태의 분석과 기움의 이론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은 분명하다. 그 오류의 원인은, 기움이 언어 외적인 개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현재라는 용어를 언어적 개념의 용어로 동일시하는 데 있다. 해석상의 미묘성은 인정하지만 “선택적”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현재 시제의 심리적이고 언어 외적인 개념을 제한적으로 지시한다. 만약 기움이, 현재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동사의 형태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하려고 했다면 언어적 현재의 다양한 용법 중에 그러한 감정의 운반에 적합한 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Temps et verbe<sup>3)</sup>에서 세운 이론의 초안은, 기움 자신과 특히 R. Valin의 후속 연구로 말미암아 현재의 도형 구조가 수평성 horizontalité에서 수직성 verticalité으로 바뀌고 chronotype의 배치도 결정적으로 확립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을 방법론적이며 인식론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재론하고, 심리체계론의 원리에 따라서 동사의 현재 형태를 분석해 보기 전에 전통적인 시각의 현재 분석도 시도해 볼 것이다.

1) C. Baylon, P. Fabre. *Grammaire systématique de la langue française*, p.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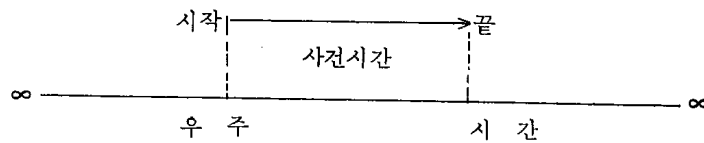
2) *Ibid.*, pp.98~99. : 현재 개념의 정의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화연순간”이라는 표현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허술한 표현이다. 한정하기 어려운 이 순간이 우리로부터 끝없이 도망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각자는 결국 현재시간은 막 흘러간 그리고 곧 흘러갈 순간의 부분으로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선택적으로 감지한다” (G. Guillaume, *Temps et Verbe*, IV, p.51.

3) Guillaume, 1929; 1965; 1970, Chap. IV, p. 51.

II.

1. 기욤 언어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通言 langage의 양면 분석인데,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한 면을 談話 discours로 보고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어서 찾아내야 하는 또 한 면을 言語體 langue로 보았다. 담화는 표현된 것 exprimé의 질서를 따르고 언어체는 정신적으로 표상된 것 représenté의 질서를 따른다. 담화에서 결과적으로 지각되는 langage는 우리 자신과 우주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는 언어 외적 현실의 정신적 표상체계를 표현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 언어학의 결정적인 목적은, 담화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체계적 조직을 다시 찾아내고 그 기능을 조절하고 설명해 주는 정신적 역학 mécanique을 발견하는 것이다. 담화의 특징은 표면적이고 다양하며 순간적이고, 흔히 모순적이다. 기욤이 그려 놓은 그 역학운동의 대강은<sup>4)</sup> 사변적 범주에 속하며 그 운동은 관찰 가능한 사실에서 출발하여 귀납적 방법의 접근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말하면 exprimé가 감추고 있는 정신적 記意 signifié를 분명히 구분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런데 우리들의 언어체에서는 이미 구성된 문장의 틀 속으로 낱말을 끼어 넣기 때문에, 그 운동이 문제로 삼게 되는 것은 언어체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담화에서 현실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낱말이 따르게 되어 있는, 구문의 일반적 조건을 밝혀내는 일이 된다. 담화행동을 설명해 주는 기욤의 낱말 이론은<sup>5)</sup> 바로 여기에서 비롯하고 있으며, 언어행위 중의 낱말이 유지하는 관계를 정리하여 그 등급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서 어휘론과 형태론과 통사론이 통합되는 관계단위를 되찾게 된다. 동사도 이러한 관점에서 “시제로써 완전히 이해되는” 언어체의 부분이 된다.<sup>6)</sup> 동사 계열체의 새로운 분석과 구조화는 시제개념에 대한 그의 깊은 사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그러한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는 형태의 기능에 대한 관찰이 상호 대조를 이룬다.

2. 우리가 포괄적 우주시간과 그 시간에 내포된 사건시간을 구분하여 쓸 수 있게 된 것은 기욤의 주장이 나온 이후이고, 어느 사건이나 우주시간 속에 자리잡고 거기에서 시간적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하고 있다. 시간적 공간형성의 기본 방향은 시발점으로부터 종점을 향하여 그 사건을 운반해 가는 방향이며, 과거, 현재, 미래는 그 사건 시간선상의 구획된 시기들이다.



4) Guillaume, *L'Architectonique du temps dans les langues classiques*, pp. 9-16.

5) Guillaume, *Langage et science du langage*, pp. 87 sq.

6) *Ibid.*, p. 90.

붙어동사의 단순형태와 복합형태 그리고 중복합형태는 相 aspect과 時間 temps의 표현을 형태적으로 연합시키고 있어서, 가령 je chante는 사건의 시간상 위치는 현재지만 아스펙트상으로는 이 문장이 떠고 있는 내재성 때문에 이행되고 있는 어느 지점에서 그 사건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j'ai chanté는 시간상으로는 하나의 현재형태를 떠면서도 상의 관점으로는 최종 완료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파악된다. 그러므로 현재로 표시된 조동사의 형태가 갖는 초월성 때문에 아스펙트는 과거지만 시간적으로는 단순과거나 반과거와 같은 과거 시기가 아니다. 단순과거나 반과거는 그 어미 형태만으로도 벌써 과거의 입장을 강요한다. 미래시제도 마찬가지다. 기움에 의한 작용시간 temps opératif, 시간발생 chronogénèse, 그리고 영상시간 image-temps이라는 시간에 대한 사상적 구조 단계의 발견은 붙어 동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법 modes이 표상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개념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도 한다.

기움의 노력은 어떤 특정한 언어체의 사실들을 이해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내적 논리를 찾아내려는 것이지 표면상의 외양에만 국한한다거나, 인간의 언어체가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선협적이며 순수 논리적인 추론을 하고, 현학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언어사실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언어사실의 기술에 국한되는 語義學的 추리방법 démarche sémasiologique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개념론적 분석에 입각하여 언어사실을 구조화하는 名稱論的 추리방법 démarche onomasiologique은 언어 심리 체계론의 이론적 원리나 방법론적 원리에 전적으로 모순된다.

실제로, 각개 언어체의 뼈대가 언어 외적 현실의 정신적 표상체계라고 한다면 언어체들간에 형태, 통사, 어휘 그리고 음운 면에서 상호간의 값어치는 똑 같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의미작용은 방해 받지 않고 비교적 유사한 관념을 띤 채 모든 균형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언어체들은 같은 기준에 따라서 같은 언어소재를 분배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깊은 연구와 관찰을 병행해서 언어소재가 분배되는 내적 작용과 그 숨겨진 관련성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sup>7)</sup> 다시 말하면, 기움의 용어로 기호구조 structure sémiologique라는 것과 그 용법을 설명하고 조절하는 心的체계를 재발견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붙어에서의 현재 시제는 화자가 차지하고 있는 특권적 시간 위치를 중심으로 전·후면(과거와 미래) 사이의 시간 경과에서 지각되는 지속성이라는 심리적 개념을 특별히 표현하는 의미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와 같은 동사형태를 문제로 삼을 때는, 기움이 Temps et Verbe에서 보여준 현재시간의 수직성을 연역해 보는 것이 당연하다.

기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sup>8)</sup> 문법형태로 고정된 명칭은 서로 다른 언어체 간에 똑같은 signifié를 내포하기 어렵다는 사실의 인식에 따라서 같은 명칭의 용어로 표현된 형태라

7) *Ibid.*, p. 221.

8) R. Valin, M. Molho, W. Hirtle, G. Gariner 등.



이것은 불어의 일군동사 어미형태에서 거의 완벽한 대칭을 보여 주는 다섯 개의 기호학적 형태다.

— ai		— rai
	— e	
— ais		— rais

이러한 재구성이 일단 이뤄지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레벨이 무엇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내는 일이다.

서로 다른 동사의 두세 개 체계를 동시에 연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라는 문법적 명칭이 동일한 기의 *signifié*를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언어 체계 내에서 현재라고 명칭하는 동사형태의 언어적 가치는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현재의 언어외적 사실을 개념론적 분석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그 이론이나 가설의 효력에 대해서 당연한 의문이 제기된다.<sup>11)</sup>

주어진 체계내에서 내려지는 언어적 가치에 대한 모든 정의는 그 용례의 분석에서 밝혀낼 수 있는 실증적 사실에 입각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발생과 소멸의 레벨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서 기음의 원리를 적용하여 입증해 보려는 점이다.

### Ⅲ

1. 동사현재의 언어적 行態에 대한 記述的 연구는 아무리 세련된 연구라할지라도 문맥의 성질과 의미작용을 지배하는 원리에 따라서 그 동사의 일반적 용법가치를 모아보는 노력밖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음의 관점이 아닌, 전통적 관점에서 記述的으로 정리된 일반적인 현재의 용법을 분류해 보겠다.

a) 현재 시제는 言主의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금의 사실을 나타낸다. 이 때 그 형태의 용법과 그 형태가 나타내는 언어외적 현실사이에는 일종의 共存性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적 합치가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동시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재로 표현된 사건이 사건 순간의 앞뒤 양쪽으로 확장되었을 때는 그 현재는 지속성 현재 또는 미완료성 현재가 된다. 문맥에 따라서 그 사건에 남아 있는 시간의 부분을 과거 방향이나 미래 방향 또는 두 방향으로 특성지울 수 있다. 그래서 *Je travaille depuis deux heures*는 과거 지향의 회구적 현재가 되고, *Je travaille jusqu'à deux heures*는 미래 지향의 전망적 현재가 되며, *La pluie tombe*는 지속성 현재가 된다.

11) 적어도 《순수 현재 *présent pur*》라고 그가 일컫고 있는 현재의 언어적 가치에 대한 정의에서 M. Wilmet는 동사형태로 나타난 언어외적 지시대상이 갖고 있는 문맥적 *signifié*에 언어체의 *signifié*를 동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M. Wilmet, *Le système de l'indicatif en moyen français*, Etude des " tiroirs " de l'indicatif dans les farces, sottises et moralités françaises des XV<sup>e</sup> et XVI<sup>e</sup> siècles, Genève, Droz, 1970, pp. 23, sq.)

또한, 동사의 어의가 순간성을 띠고 나타나는 현재는 그 사건의 동작이 발동하는 시점에서 포착된 현재이기 때문에 點括的 ponctuel 또는 완료적, 총괄적 현재가 된다: *La voiture s'arrête, Je pose la craie, La lumière s'allume.*<sup>12)</sup>

b) 현재는 어떤 특성, 습관적 사실, 일반적 진리, 경험사실을 나타낸다: *Pierre n'aime pas travailler. Il se lève tard. La raison du plus fort est toujours la meilleure. Le sel fond dans l'eau.*<sup>13)</sup>

c) 현재는 “기억이나 상상력의 힘으로 실현된” 지나간 또는 닥아올 사실을 나타낸다.<sup>14)</sup> 여기에서는 정교한 이론적 분석이 적용되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역사적 현재, 서술적 현재 또는 무대의 현재<sup>15)</sup>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M. Wilmet는 픽션 드라마의 등장 인물과 배우와 독자와 화자의 현실성과 여러 종류의 무대에서 전개되는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관계에 대해서 섬세한 분석을 하고, 무대에서 전개되는 현재를 기술체 현재와 서술체 현재로 구분한다.<sup>16)</sup>

d) 현재는 가정 hypothétique 구문에서 종속절의 가정적 사실을 나타내는데, 때로는 주절에서 표명된 결과적 사실까지도 나타낸다: *Si tu me le demandes, je te le donnerai. Si tu me le demandes, je te le donne.*

e) 현재는 목전의 의도를 표현한다: *Je pars en Italie dans trois jours. C'est moi qui paye aujourd'hui. Je descends à la prochaine station.*

f) 현재는 완료적 의미의 몇몇 동사로써 확장된 의미의 근접과거나 근접 미래를 나타낸다: *Il sort, il part à l'instant.* 이 때는 그가 이미 외출하여 떠났거나 외출할 준비가 된 것이다.

12) C. Baylon & P. Fabre, *Gr. systématique de la langue fr.* pp.98 ~ 99에서도 역시 동사의 현재가 갖는 미완료성의 항구적 가치와, 현재라는 동사적 틀이 아니라 그 동사의 어의에 따라서 형성되는 현재의 진행성과 순간성에 대한 언급이 있다.

13) C. Baylon은 상계서에서 일반적 진리의 현재와 이행 중에 지각되는 현재를 접근시켜서, 각각 “인류의 화언순간 *le moment de parole de l'humanité*”과 즉각적인 화언순간 *l'instant de parole immédiat*에 결부시키고, 이 경우 현재는 모두 과거와 미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거나 습관을 나타내는 현재는 이러한 통합체에 수용하지 않는 것인가. 더구나 수많은 다른 현재의 용법은 어떻게도 처리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14) cf. “on actualise aussi par la force de la mémoire et de l'imagination des choses passées ou à venir qui s'expriment alors au présent.” Wagner et Pinchon, *Grammaire du français classique et moderne*, p. 336.

15) H. Sten, *Les temps du verbe fini en français moderne*, København, Munksgaard, 1952; 1964, p. 33.

16) M. Wilmet, *Etudes de morpho-syntaxe verbale*, Paris, Klincksieck, 1976, pp. 9-40.



g) 접속절 또는 관계 종속절의 문맥이 과거 또는 미래로 되어있을 때, 항구적인 사실로 간주되는 것은 현재로 나타낸다 : Galilée a démontré (démontrera) que la terre tourne. Je suis passé (passerai) par la route qui prend à droite.

이상에 정리된 항목에 첨가할 수 있는 현재용법은, 요약하는 데 쓰이는 시제로서의 현재, 사전같은 데에서 傳記작성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情意的이거나 잠재적인 또는 허구적인 표현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현재 시제가 있다. 현재 시제는 nouveau roman 계열의 작가들이 서술적 테크닉을 새롭게 해 보려는 의도로 많이 쓰기도 했고, 라디오, 텔레비전 르포의 시제이기도 한데, 이러한 시각에 비추어 본다면 그 용법의 목록은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확대목록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문맥의 의미전달 효과를 매끄럽게 다듬는다는 데에 있을 것이므로 문체론의 영역에 속하게 되고 말 것이다.

2. 기욤의 연구결과로 동사형태는 시간 외에도 상 aspect 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인정된 이래로 동사형태의 정의에 상의 가치가 뚜렷해졌으나 동사 형태에 관한 아스펙트 관점의 연구는 전혀 같은 결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아스펙트 가치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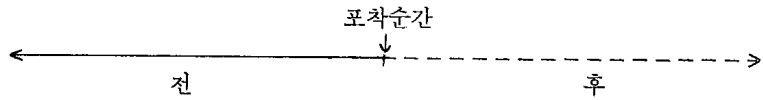
H. Sten 은 현재 용법의 아스펙트 가치에 대해서 매우 미묘한 분석을 하고 있다. 즉, 현재는 “흔히 미완료상을” 갖지만 “순간적”이고 “완료적”일 수도 있고, “모든 성질을 다 조금씩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마치 카멜레온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sup>17)</sup> M. Wilmet 에 있어서는 반과거처럼 분할적 아스펙트의 성질을 띤다.<sup>18)</sup> R. Martin 에게서는 반과거가 가지고 있는 “지속-미완적”상의 성질을 띤다. 기욤의 심리체계론에서는 확장·초월성을 띤 복합형태와 양면 확장·초월성을 띤 중복합 형태와의 대립을 통해서, 현재를 동사 이행과정의 내재성과 장력 tension 을 나타내고 있는 단순형태로 분류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동사의 단순-복합형태의 대립은 현재의 상이 가지고 있는 완료성과 미완료성의 경계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의 남용으로 생길 수도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완료적, 未完的, 分割的, 총괄적 따위의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이해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자. 또 동사형태의 아스펙트 가치가 무엇인가를 규명할 수 있게 해 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알아보자.

사건은 어느 것이나 시발에서 종말을 향하여 그 사건을 운반해 가는 운동에 의해서 시간 속으로 내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건은 그 시발과 종말 사이의 어떤 시점에서 파악된다. 그 사건의 한 부분은 완성되었고 또 한 부분은 완성을 기다리며 남아 있는 완료 과정에 놓여 있고, 그 과정은 장차 뚜렷한 윤곽을 갖게 된다. 그 사건의 전체적 지속성이나 완성 상태를 우리의 생각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 사건의 aspect 는 미완적이라고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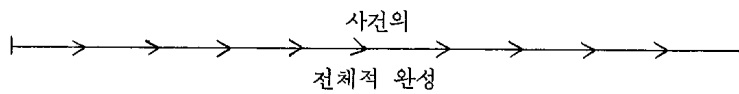
17) H. Sten, *Les temps du verbe fini en français moderne*, p. 21.

18) *Le système de l'indicatif en moyen français*, p.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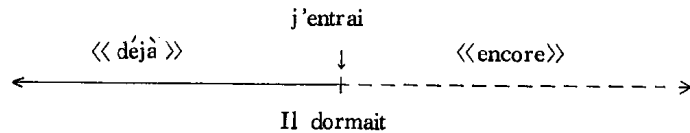
할 수 있다. 분할적 아스펙트라는 용어는 포착 순간이 사건시간 내부에 하나의 단면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난다.



동사의 과정은 사건의 전체적인 전개로 파악된다. 동사의 실제적인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상이 사건을 지각하는 전체성의 정도에 따라서 총괄적 아스펙트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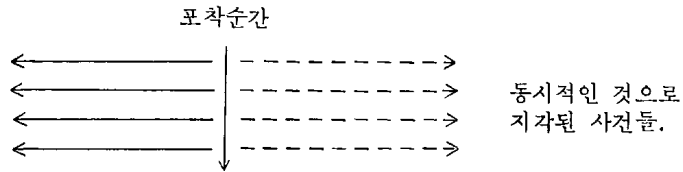


부사와 결합된 동사 유형이나 몇몇 특수한 문맥의 구성요소는 동사의 아스펙트 가치를 이미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만 국한시켜 본다면, 가령 반과거가 *déjà*와 결합하여 쓰일 경우는 대개 이미 완료된 사건시간의 부분을 의미하게 된다. *Il dormait lorsque j'entrai*와 같은 문장의 시제상 용법을 도식화해 보면 알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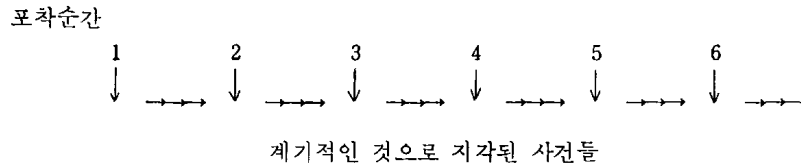


어느 사건이나 마찬가지로 *j'entrai*는 실현되는 데 얼마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지각되는 이 시간은 전체 시간 속에서 한 시점으로 귀결된 시간이다. 단순과거는 그 사건이 이미 완료된 부분의 의미를 떠는 *déjà*를 허용하지 않지만 그 대신에 그 사건 전체 속에서 지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해 주는 문맥적 요소라면 어느 것보다도 결합하여 쓰인다: *Mais, le soir, elle se plaignit d'être fatiguée.* 이러한 문맥에서 반과거가 쓰인다면 습관을 나타내는 용례가 될 것이다. *Il travailla, de telle date à telle date pendant tant de temps* 이라고 말할 때는 그 동작을 전체적으로 한 눈에 포착하게 된다. 단순과거는 사건의 완료부분( $\omega$  시편)의 의미가 내포된 담화 요소와는 양립 불가능이다.

반과거가 묘사의 시제로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déjà*와 *encore* 사이의 어떤 時點에서 포착된 사건을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실이 그에 주어진 시점과 동시대성 *contemporanéit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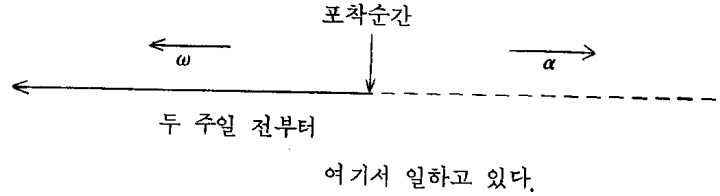
그러나 단순과거가 사건의 통시적 繼起性을 수용하고 서술적 성격을 띠 수 있는 것은 단순과거가 사건의 전체적인 전개 발전과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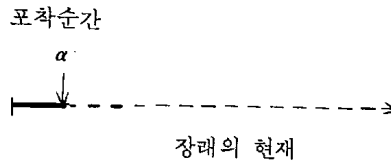
동사와 부사를 결합하여 쓸 때, 만일 우리가 아스펙트와 시제의 관계를 통해서 동사형태의 변별적 資質을 밝혀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면 모든 동사의 형태를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고, 현재가 단순과거나 반과거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면, 반과거 결합계열에 비추어서 현재의 상을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용어상으로도 현재의 상이 반과거 처럼 미완, 분할, 지속성을 띠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 될 것이다. 그 대신 현재의 아스펙트 가치를 여러 가지 담화적 의미효과로 굴절시키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그 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언어적 가치를 정의하고 담화적 기능을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기욤의 이론으로 정립된 현재 시제의 도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의 심리체계론에 입각해서 현재 시제를 분석해 보자.

####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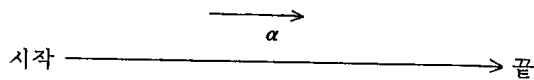
분석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지만, 불어의 현재는 내재적 아스펙트에 속한다는 사실을 먼저 밝힌다. 그것은 현재는 어느 상황에서나 그 내부에서 포착된 사건의 이미지를 제공할 것이라는 뜻이다. 현재는 그 전개 과정이 화언행위와 동시적이며, 물리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을 지시하기 위해서 화자가 이용하는 형태다. 이러한 현재동사의 근간은 문맥상황의 지시에 따라서 지속적인 것도 있고 점발적인 것도 있다. *Où est-ce que vous allez comme ça? Nous retournons chez nous.* 지속적 과정을 보여 주고 있는 *vous allez* 와 *nous retournons*이 표현하는 사건은 그 사건의 시발과 종말 사이의 어떤 주어진 순간에 포착된다. 그 사건 시간이 포착순간의 양쪽을 넘나드는 것은 당연하다. 가령, *Je travaille ici depuis deux semaines*에서는 사건의 흘러간 부분에 대한 시간적 지시를 하고 있는 데도 사건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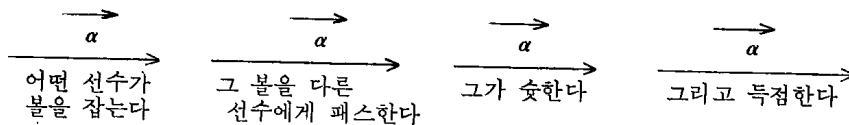
사건의 포착은 그 사건의 시발 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내가 작업대에 자리를 잡고서 *Maintenant, je travaille* 라고 말하는 경우나 받아 쓰기를 시작하기 이전의 순간에 *A présent, je dicte le texte* 라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는 하나의 의도를 진술한 것이고, 현재는 의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도 역시 그 사건은 시작의 순간부터 장래의 방향으로 진입한다는 지각이 정신적으로 이루어진다. 수없이 많은 일상적인 활동을 표현하는 동사의 현재는 즉각적이고 점관적이다: *J'ouvre la porte. Je prends le café. Je regarde la télévision* 등등의 동사 과정은 그 과정 전체 속에서 정신적으로 지각되고, 표현도 시발로부터 종말로 향하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한 완료가치를 띤 복합과거로도 표현된다. 운동경기의 직접 중계가 특히 그러한 경우다. 가령·동작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계하는 사람이 그것을 말로써 전부 전할 시간이 여의치 못할 때는 더욱 그렇다. 대개는 단음절 명사 구문과 현재와 복합과거 시제의 문장이 번갈아 나오게 된다. 도식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현재들은 시간의 상향방향을 그대로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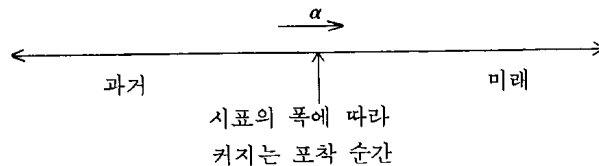
우리가 時標를 통한 기운의 공식을 이용할 것 같으면  $\omega$  시표는 사건의 완료·소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문맥결합이 현재의 순간으로부터 과거로 흘러 사건의 시발점을 향한다는 상상을 일으킨다. 즉  $\leftarrow \omega$  이고,  $\alpha$  시표는 포착순간부터 시간의 상향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분명해지는 발생부분을 위한 것이다. 즉  $\rightarrow \alpha$  으로 나타내는데, 지금까지 고찰한 현재 시제의 용법들을 이 시표 이론에 적용하여 살펴보자.

a) 현재 용법이 확인시켜주는 점은 불어에서의 우주시간은 화언순간부터 양극 방향성을 띠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사실이다.



기운은 하향운동은 생각 속의 시간 진행운동이고 상향운동은 시간 속의 생각 진행운동이라고 말한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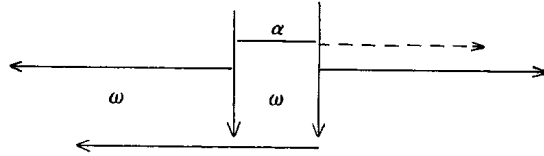
b) 불어의 현재는 엄밀하게 “생생한 의식”의 순간, 심적 포착의 순간을 나타내고 이 순간에 사건은 그 사건 자체의 존재 속에서 지각된다. 동사 진행과정에 순간적으로 일치하는 의미에 따라서 이 포착순간은 우주시간에 발생적으로 끼어들게 되고 그 속에서 사건시간을 전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기운은 무효 소멸위에서 발생하는 현재에 관한 언급을 아래와 같은 도표로 대신한다.<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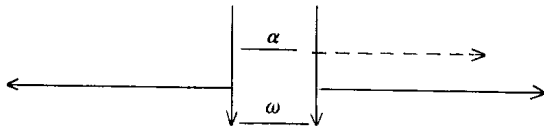
현재는, 한 부분은 완료된 것으로 지각되고 또 한 부분은 장래의 완료과정에 있는 지속적인 사건의 중개적 순간에 일치할 수 있다. 기운이 말하는 소멸 시표 오메가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시표 알파의 현재다.

19) Guillaume, *Langage et science du langage*, pp. 60,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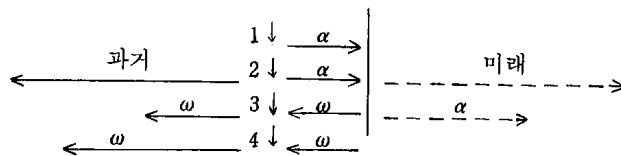
20) *Ibid.*, pp. 199-211.



결국 현재는 지속적인 사건이 시간 속으로 끼어드는 최초의 순간과 일치할 수 있다. 이 최초의 순간은 실제적일 수도 있고 기대적일 수도 있다.<sup>21)</sup>



모든 경우에 이 포착순간은 상향동력이 소멸동력으로 전환하는 시간적 중심위치가 되는데, 이 포착순간은 우리를 순간순간 사건의 종말로 이끌어 가는 한편 그 사건은 과거를 향한 기억 속의 소멸과정에 빠져들게 하는 시간운동 *mouvement temporel*에 의해서 역동성을 띠게 된다. 사건시간의 발생방향이나 소멸방향 또는 그 두 방향 모두가 이 포착순간으로 비롯하여 특성을 부여받는다. 이 세 결과를 단일 도표로 나타내고 사건시간에 가변적인 포착을 대비시키면 아래와 같다.



1에는 의미상 즉각적인 현시점의 사건이 전체적으로 시간에 끼어들어 간다는 사실이 표명되었다. 이 순간에서 α의 ω 전환은 지각되지 않는다. 사건의 과거 소멸 하강현상이 고려되지 않은 채 사건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고정시켜 주는 것은 짧은 순간의 노출과 같다.

2에서는 동사나 문맥의 의미상 지속성을 띠는 사건이 그 최초 발생순간에 시간 속으로 진입하는 모양이 나타나고 그 나머지 율곽은 장래에 뚜렷해진다. 여기에서도 앞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발생은 완료상으로 바뀌지 않는다.

3에서는 문맥과 동사의 의미상 지속성을 띠는 사건이 부분적으로는 완료된 것으로 감지되고 부분적으로는 미래성 완료로 지각된다.

21) 현재의 이러한 중간 포착에 대해서는 기욤의 언급이 없었지만, 반과거에 대해서는 중간포착을 이용하고 있다.

4에서는 그 사건이 시간진입의 최종순간에 포착된다는 사실만 제외한다면 3번과 동일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불어체계가 선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표현 가능성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재성을 띤 최종순간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초월성을 띤 최초순간의 표현이다. 담화상의 목적 때문에 최종순간에 포착된 사건이 현재와 과거의 경계선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자 한다면 반과거를 이용하면 된다. 사건이 현재의 최종 진입순간에 포착되었을 때는 사용하는 시제의 형태가 현재, 반과거, 복합과거 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그ニュ앙스는 차이가 난다. 가령 *Voilà, Je suis venu pour vous voir* 라는 문맥에서 시제를 현재로(*je viens*) 바꾸어 쓰면 내가 왔다는 사실의 표명순간이 최종순간으로 나타나고, 반과거로(*je venais*) 쓰면 예의를 갖춘 표현으로 내가 온 시간의 방향은 과거 속으로 빠진다. 복합과거로(*je suis venu*) 쓸 경우는 근접 과거사실이 현재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시간적 후퇴를 나타내는 동사형태는 화자의 겸손한 마음이나 대화자에 대한 공경심을 나타내 보이려는 문체적 기능을 갖는다. 현재 형태는 상대적으로 거칠고 스스로 없는 표현이 된다. 동사형태는 外延的 가치 이상으로 내포적 가치를 띠고 있으며 단순한 서술적 문맥을 통해서도 그 가치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

이러한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Wilmet 가 소위 순수현재라고 규정하고 있는, 화언행위와 동시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현재의 모든 용법은 기묘의 수직성 현재 구성지표의 도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도해는 형태를 체제로 정의하고 다양한 문맥과의 체계적 결합을 가능케 한다.

그렇지만 불어의 현재는 심적인 사건의 표현에도 적합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Il me vient une idée ... Je pense que ... J'admets que ... Je déclare que ...* 등의 경우 그 언어적 표현과 사건의 정신적 지각 사이에 동시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동사형태와 문맥요소가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 의미된 정신적 사실이 시간적인 면적을 가지는지의 여부와 그것이 즉각적인 사실인지 지속적인 사실인지 하는 점을 말할 수는 있다. 우리가 선형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가령 *je pense* 라는 정신적 사건이 *depuis, dorénavant, en ce moment précis, tout à coup, jusqu'à, toujours* 와 같은 요소들과 함께 쓰일 때는 *je pense* 에서 지각할 수 있는 물리적인 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이 요소들이 제공한다.

경험사실이나 일반적인 진리, 특성 등을 현재로 진술할 때 우리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축지할 수 있는 모든 지칭관계를 초월해서 작용한다. *La terre tourne autour du soleil. Le sel fond dans l'eau. Pierre travaille bien. Je fume. L'homme est mortel.* 등으로 말할 때, 주어와 통사적 확장을 하는 동사의 사이에 설정되는 술어적 관계는 시간 외적 기여 *apport ex-temporel* 가 된다. 그것은 축지할 수 있는 언어 외적 지시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 관계가 순전히 추상적이고 잠재적으로 지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관계를 이루는 요소중의 하나는 사건시간의 외연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시간적 확장을 초월하는 주어의 존재시간이다. 주어와 동사의 관계는 순간적인 진술이나 문맥 속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

에 그 관계가 비교적 항구적인 것으로 감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갖게 된다. *La terre, le sel, l'homme*는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론적으로는 무제한의 존재성을 띠고, 현재는 이것들이 문맥에서 작용하는 존재의 확장성을 그대로 따른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습관적인 성향이 개체의 보편적인 진리를 형성한다.

언술의 이해에 필요하고 언술행위에 관련되는 모든 개념내용 가운데서 명확한 구분이 가장 힘든 것은 언어형태의 개념내용(의미)이기 때문에 일반적 형식범주의 대표인 낱말의 체계적 범위의 규명과 담화적 의미효과에 도달하는 계통의 재구성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의 의미내용을 정의하려면 시간에 대한 심적 구조를 전부 재구성해야 하고 그 구조 속에서 현재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매개변수를 확립하고 또 다른 체계요소와 맺고 있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되살려 보아야 한다.

과거와 미래의 가치를 갖는 현재를 살펴보자. 현재의 용법중에서 과거나 미래사실을 나타내는 용법은 시간의 정신적 표상이 갖는 극도로 추상적인 성격을 잘 보여 주고, 형태와 개념이 결합할 때의 역할을 한정해 주므로써 현재 형태의 정의를 쉽게 한다. 이러한 현재용법의 증명은 물론 기억과 상상의 힘을 빌어서 과거나 미래의 사건을 실현하거나 앞당기는 원리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 용법은 기묘이 직설법 수준에서 이론으로 내세운 시간구조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발생 과정을 이용해서 과거나 미래로 옮겨지는 현재의 정신적 이동이 객관적으로 과거나 미래가 현재처럼 지각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의미작용의 관점에서는 동일한 결과다). 그것은 시간적 배열상의 현재가 아니라 심정적인 현재일 뿐이다. 매우 제한된 용례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예문을 살펴보자.

- ① “Il faut partir après-demain, dit mon père. Aujourd d’hui c’est vendredi.  
- *Ce fut vendredi, dit l’oncle. Et nous partons dimanche matin.*  
- Tu sais bien que *lundi c’est la rentrée* des classes, dit la tante.” (M. Pagnol, *Le Château de ma mère*, p. 69)
- ② “C’est pour la garde, dit-il froidement. *S’il vient pour étrangler papa, moi, je passe par derrière et je le tue dans les fesses.*” (*Idem.*, p. 199)
- ③ *J’achète samedi dernier* des endives à 2,80 F. *Elles sont belles, je les conseille donc à une amie qui va chez le même commerçant: elles sont passées à 4,10 F. en une demi-heure de temps. Pourquoi?* (*50 millions de consommateurs*, N°85, p. 43).
- ④ Une heure plus tard, *M. Levallier et moi entrons* dans un appartement bourgeois de la rue Spontini où, dans une espèce de futoir-cabinet-de-travail, *je me trouve brusquement et par surprise face à face avec mon supporter au procès (...)* (P.Nord, *La foire aux savants*, p. 145)

① ②번 예문은 미래가치의 현재를 사용하고 있다. ③은 과거가치의 현재다. ④는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로 차용한, 소위 역사적 현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맥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동사형태는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언어 외적 현실에 대해서 정신적 표상의 과정



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주목되는 점은 사전시간을 발생, 소멸 또는 그 두 방향으로 고려하거나 소멸을 바탕으로 한 발생의 방향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담화적 가치를 현재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 Nous partons dimanche의 출발은 그 시각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성으로 고려된다. - Lundi c'est le rentrée des classes도 전체적으로 고려된 현상이다. 개학이라는 정신적 이해가 총체적으로 이뤄진다:  $\overrightarrow{\text{발생}}$  - S'il vient ...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즉 그 어린이가 감시인을 보자마자 공격하는  $\overrightarrow{\text{발생 1}}$  -----  $\overrightarrow{\text{발생}}$  → 경우와 그를 공격할 결심을 하기 전에 그가 오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기다려 보는 경우인데, 이 때 그가 오는 동작은 개시와 종료 사이의 어떤 시점에서 실현되는 동안에 포착되고, 물론 아버를 목조르기 위한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 포착된다:  $\overleftarrow{\text{소멸}}$  ↓  $\overrightarrow{\text{발생}}$ . 반과거로 바꾸어도 사전시간의 이미지는 현재와 똑 같다. - Je passe par derrière et je le tue dans les fesses. 어린이는 조건이 실현될 경우의 확고부동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완전히 발생적인 현재다.

$\overrightarrow{\text{뒤로 가서}}$   $\overrightarrow{\text{죽인다}}$  - J'achète samedi dernier ... 완전히 이루어진 구매로 지각된다. J'ai acheté라는 복합과거로도 쓸 수 있는 과거가치의 현재로 고전 불어에서는 단순과거를 사용했다. - Elles sont belles는 이미 산 꽃상치의 특징이다. 그것은 사기 전이나 후나 계속 아름답다:  $\overleftarrow{\text{소멸}}$  ↓  $\overrightarrow{\text{발생}}$  - Une heure plus tard, nous entrons ...의 사건은 최초의 완료순간에 포착되며 서술적인 문맥이 장차 뚜렷해 질 발생방향의 사건 잔재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 그 문맥에는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기까지 머리 속의 사건을 끝까지 쫓도록 환기시키는 배려가 남아있다.

예문 분석의 결과로 확인되는 것은 모든 현재용법의 공분모는 수직성을 띤 동력구조 construction cinétique이고 그 구조를 통해서 사건의 완료성이 부분적인가 또는 전체적인가를 포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 어느 경우에나 현재는 내재적인 아스펙트를 갖는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현재는 두 개의 과거시제(반과거와 단순과거) 사이에서 두 개의 기본가치를 분배해 준다. 즉 순수한 발생적 현재로 만들어주는 가치와 발생을 소멸로 전향시키는 가치다. 과거나 미래를 옮겨 쓴 현재는 즉각적인 경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동사의 어의가 접팔적이건 지속적이건 담화목적에 따라서 발생수준이나 소멸수준에 내삽된다.

## V.

결론적으로 현재는 모든 언어사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상구조이고, 그 용법의 관찰을 바탕으로 한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밖에는 그 구조를 분명히 들어낼 수 없다. 현재의 형태가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언어외적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그 구조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론 정립을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가능한 한 많은 수의 관여적 사실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동사와 부사의 결합에 집착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그러한 경우까지도 관련 형태

의 아스펙트가치와 시제가치에 관한 자료를 분류해야 한다. 낱말 구조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는 낱말의 담화 개입의 관찰이나 기술이 훨씬 용이해 진다. 이러한 경우는 정확한 문법적 연구보다 문체론적 연구가 확실히 우월한 효과를 갖는다.

### Bibliographic

- Arrivé M. et Chevalier J.-C.: *La Grammaire*, Paris, Klincksieck, 1975.
- Baylon C. et Fabre P.: *Grammaire systématique de la langue française*, Paris, Nathan, 1973.
- Chevalier J.-C., Blanche-Benveniste C., Arrivé M., et Peytard J.: *Grammaire Larousse du français contemporain*, Paris, Larousse, 1964.
- Guillaume G.: *Langage et Science du langage*, Paris, Nizet, 1969.
- : *Leçons de linguistique 1948-1949*, Paris, Klincksieck, 1971.
- : *Leçons de linguistique 1949-1950*, Paris, Klincksieck, 1974.
- : *Temps et verbe*, Paris, Nizet, 1974.
- Guiraud P.: *La Grammaire*, Paris, P.U.F. 1975.
- Jacob A.: *Genèse de la pensée linguistique*, Paris, A. Colin, 1973.
- : *Temps et langage*, Paris, A. Colin, 1967.
- Joly A. et Hirtle W.-H.: *Langage et psychomécanique du langage*,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Québec, 1980.
- Martin R.: *Temps et aspect*, Paris, Klincksieck, 1971.
- Pottier B.: *Les sciences du langage en France au 20<sup>e</sup> siècle*, Paris, SELAF avec le concours du CNRS, 1980.
- Wagner R. L. et Pinchon J.: *Grammaire du français classique et moderne*, Paris, Hachette.
- Wilmet M.: *G. Guillaume et son école linguistique*, Paris, Nathan, 1972.
- : *Etudes de morpho-syntaxe verbale*, Paris, Klincksieck.